

#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등 하반기 연주 다채

정기·기획·찾아가는 공연 등  
폭넓은 레퍼토리 통한 구성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연계도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이 하반기에도 감동의 무대를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병욱 예술감독은 상반기 동안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후, 하반기에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하반기 정기연주회는 총 5회로 구성되며,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클래식 다양한 색채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기연주회는 △Brilliant Colours(7월 25일·바이올린 이수빈) △The Echo of Peace(9월 12일·바이올린 윤소영) △Fall in love with Opera(10월 17일·지휘 최승한, 소프라노 강혜정, 이운정, 테너 국윤중, 바리톤 양준모) △혁명가들(11월 14일·피아노 김규연) △Winter

Rhapsody(12월 예정·지휘 정한결, 피아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념음악회(9월 12일)와 400회 정기연주회 기념음악회(11월 14일) 등은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된 공연과 오랜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무대들로, 국내외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오티움 콘서트’는 하반기에도 특별한 악기를 주제로 한 기획연주회를 선보인다. △오티움 콘서트Ⅲ ‘Flute’ (8월 22일·지휘 김영연, 플루트 이에린) △오티움 콘서트Ⅳ ‘Oboe’ (10월 23일·지휘 시몬 에델만, 오보에 임현애) △오티움 콘서트Ⅴ ‘Guitar’ (11월 26일·지휘 이병욱, 클래식 기타 박규희) 등 다양한 악기들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광주시향 단원들의 섬세한 연주와 독창적인 표현력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체임버 시리즈’도 하반기 4회에 걸쳐 열린다. △체임버 시리즈Ⅴ

‘Soul in minor’ (8월 28일) △체임버 시리즈Ⅵ ‘Fanfare’ (9월 26일) △체임버 시리즈Ⅶ ‘Pastorale’ (11월 6일) 등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술로’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마스터 클래스, 콘서트토크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공간의 제약 없이 음악을 나누고자 하는 시도는 광주시향이 지향하는 공공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병욱 광주시향 예술감독은 “임기 후 처음으로 선보인 상반기 공연에 광주시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하반기에도 광주시향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티켓오픈 일정은 광주시향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 “호남권과학관 방문하고 기념품 받아 가세요”

‘스탬프투어’ 내년 3월31일까지  
22개 국·공·사립 과학관서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은 호남권과학관협의회 회원기관 중 21개 과학관과 함께 ‘호남권과학관 스탬프투어’를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1일 시작한 이번 스탬프투어는 지역 과학문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체험과 방문 동기를 제

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각 과학관에 비치된 스탬프투어 책자를 지참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권 내 과학관을 방문해 기관별 도장을 찍으면 된다.

참가자는 호남권 소재 22개 과학관 중 6개 기관을 방문해 도장을 찍으면 국립광주과학관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기념품은 500개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박찬기자

## 젊은 큐레이터들이 바라본 삶과 죽음…‘경계 사이 틈’

14~18일 산수아트스페이스  
작가-큐레이터, ‘1:3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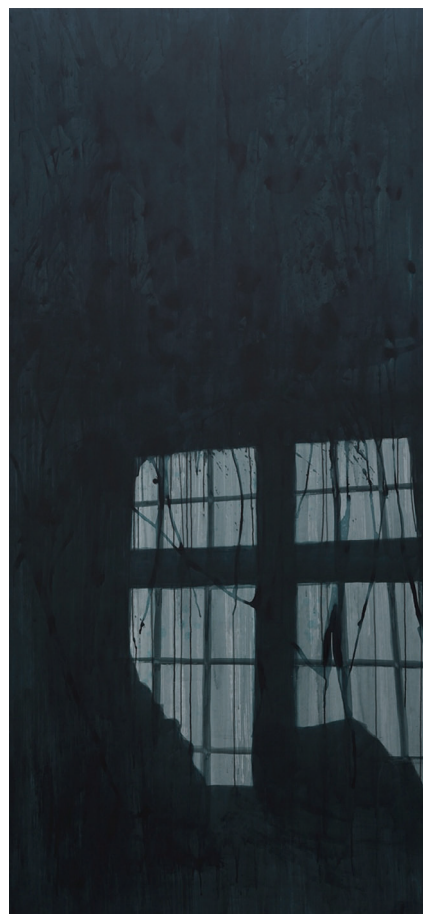
작가 3명과 큐레이터 9명이 1:3 매칭으로 공동 기획한 실험적인 협업 프로젝트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산수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 ‘작가와 큐레이터 1:3 매칭 전시 - 경계 사이 틈’이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미술계에 신선한 방식의 전시 접근법을 제안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조선대학교 소속 전시 기획 동아리 ‘하구’의 큐레이터 9명(김고은, 나단, 박준서, 변예루, 오경민, 이수미, 이유빈, 이지훈, 정유진)이 참여해 동시대 예술과 사회의 접점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전시 제목인 ‘경계 사이 틈’은 삶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의미한다. 참여 작가 김철아, 서영기, 송미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한다.

이들은 죽음을 끝이 아닌 삶의 거울로 바라보며, 유한한 존재의 가치와 인간 내



서영기 작 ‘부유하는 마음’.

하구 제공

면의 감정을 섬세하게 시각화한다. 특히 각 작가의 작업에 세 명의 큐레이터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성한 9편의 비평문이 전시의 깊이를 더한다.

김철아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며, 작품 속 인물이나 사물은 비록 부서지고 흩어진 듯 보이지만, 화면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서영기 작가는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탐색한다. 그의 작업은 시간의 흐름, 죽음 이후 남겨진 공간의 잔상, 시선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선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사물과 존재를 오래 바라보는 태도는 주요한 정서로 자리한다.

송미경 작가는 인간 내면의 공간을 상징화해 흐릿한 배경과 인물이 어우러진 화면 속 여러 상념과 감정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가와 작품만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1:3 매칭’이라는 실험적 구조를 도입했다. 이는 관람객에게도 다양한 해석의 층위를 제공해 전시를 감상하는 방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기자

## 마한 전통 엿불 ‘영암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

백제·가야·중국·왜 요소 갖춰

1500여년 전 영산강 유역의 마한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옛 무덤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

7일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 영암군의 ‘영암 시종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종 고분군은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와 내륙의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지로, 바다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확산하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양 세력과도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영암군에는 고대 고분 유적 49곳이 남아 있으며, 그 중 시종면에 28곳이 있다.

이번에 사적이 된 고분은 옥야리 장동방대형(方臺形)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이다. 두 무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축조 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옥야리 고분은 영산강 유역 무덤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며 방형, 네모 형태가 특징이다.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토기와 유리구슬 등이 출토됐다.

내동리 쌍무덤의 경우, 이 지역이 과거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출토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잔, 동물 형상의 조각 등도 발굴됐다.

영암 시종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 가야, 중국, 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해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학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기자·연합뉴스



영암 내동리 쌍무덤. 연합뉴스

## ACC재단, 오늘부터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내달까지 어린이문화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다음달 31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어린이 특별전시 ‘2025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그림책 속 주인공이 돼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세부터 8세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된다.

전시는 아시아 그림책을 바탕으로 한 직업과 문화, 놀이를 직접 보고, 듣고,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직업 체험존 △실감형 콘텐츠 △자율 워크숍 △포토존 등으로 나뉘어 직업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며 자연스럽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 관람객은 전시 공간을 모험하듯 누비며, 아시아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 관람권은 만 4세 이상 14세 미만 1만원, 만 14세 이상 2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자



연스럽게 체험하고, 책과 친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형 전시”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